

건강 칼럼

디스크 · 협착증도 아닌데,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가 너무 아파 걷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60대 환자는 왜 아픈지 원인이라도 알면 좋겠다며 하소연한다. 그는 허리가 아파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다. 어떤 병원에서는 심지어 디스크 수술이 있다고 해서 디스크 치료를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협착증이 의심된다며 협착증 치료를 했다. 하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60대라면 약간의 디스크나 협착증 소견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디스크나 협착증에 비해 통증이 무척 심하다. 또한 누워서 자세를 약간만 바꾸려고 해도 아프고, 누웠다 일어난다. 특히 아파한다. 앉았다 일어나 걷는 것도 무척 힘들다.

척추압박골절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아픈 부위를 살짝 건드려 본다. 많이 아파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모양을 보고 진단한다.

보통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어긋나는 형태를 연상

하기 쉬운데, 척추압박골절은 다르다.

부러지거나 어긋나지는 않고 뼈 모양이 납작하게 변한다. 골고루 납작해지기보다 척추 앞쪽이 더 납작해져 쐐기 모양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납작하게 보인다.

심하게 압박골절이 되면 엑스레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살짝 압박골절이 되었을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압박골절이 생기는 양상도 달라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

엑스레이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MRI 검사를 해볼 수 있다. 압박골절일 경우 MRI 상 골절된 부분이 하얗게 나온다. 뼈가 부러지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MRI에서는 하얗게 나오

는 것이다.

엑스레이 및 MRI 검사 등으로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내리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다친 적도, 넘어진 적도 없는데 왜 뼈가 부러졌느냐”며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다.

척추압박골절의 주원인은 ‘골다공증’이다. 뼈 밀도와 강도가 낮으면 가벼운 무게에도 척추가 눌려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다.

보통 뼈가 부러지면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한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 척추압박골절이 된 환자는 나사를 박기도 어렵고, 애써 박아도 금방 헐거워져 빠지기 쉽다. 보편적인 시술법은 ‘척추체 성형술’이다.

척추체 성형술은 인공뼈를 만드는 재료인 골 시멘트를 뼈 빈 곳에 채워 뼈를 단단하게 만들

어주는 시술이다. 긴 바늘을 척추체 안에 위치시키고, 치약처럼 반고체 상태의 물질을 뼈의 안쪽 빈 공간에 채운다.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2~3mm만 절개하며, 시술시간은 약 5~10분 정도다.

시술 후에는 바로 보행이 가능하지만, 약 4주 정도 보조기를 차고 생활하고, 무리한 활동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척추압박골절은 최초 진단이 중요하다. 압박골절은 한번 찢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뼈 모양이 바뀌고 척추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가 변형되면 디스크가 받는 하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더 악화되기 쉽다. 또한 여러 척추 마디가 쐐기 모양으로 납작해지면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척추가 변형되기 전, 초기에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압박골절 초반에 운동이나 걷기를 제한해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면 척추가 변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동 찬

협찬병원 척추클리닉 진료원장

사설

정용진과 트럼프 만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다.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을 통틀어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지난 12월 21일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며 기자들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면서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정 회

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렀다.

당초 12월 16일부터 3박 4일간 머물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5박 6일로 늘어나면서 정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한국 경제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겠느냐”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서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천장·아트 비전展

전주대학교 동문전인 ‘제이프로젝트 전시회·천장·아트 비전展’이 지난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차오름 1실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개막식이 있던 날 ‘제6회 황소연 미술상’ 시상식도 있었다.

올해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황소연 미술상’이 여섯 번째로 주어지는 해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자들의 작품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다는 경이다. ‘2024 황소연 미술상’ 수상자는 군산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김성춘 작가가 선정됐다.

황소연 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인선)는 “수채화를 이용한 인물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김성춘 작가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의 독특한 인물 표현은 경지에 이를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오랜 집념과 어려운 인물화에 대한 저변 확대가 고려된 것으로 평가

된다.

김성춘 작가는 전주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6회, 단체전 330여 회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북수채화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황소연 미술상은 지난 2013년 10월 7일 타계한 고 황소연 교수의 교육애와 예술정신의 유지를 받들었다. 유가족들의 지원으로 예술 활동에 모범이 된 전주대학교 출신의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격년제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수상자는 고 황소연 교수의 유지를 이해하고 작가로서 역할을 발휘하여 영예로움이 문화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예술 활동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도네시아, 6일부터 무상 급식 시행



프라보위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전국적인 무상 급식 정책이 시행된 6일(현지시각) 서자바주 드록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교 관계자가 학생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비탄론자들은 모든 아동과 임산부 등 8천300만 명에게 제공하는 이 정책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와이 만나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배우 사와이 만나가 5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더 베벌리 힐튼에서 열린 제82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소군’으로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후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군’은 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4관왕에 올랐다.

사와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